

시

주영길

아버지의 콧노래

힘든 일 하시고 점심 식사 후
목집을 베고 잠든 아버지
드르렁 드르렁 콧노래 부른다.


아버지의 침대 옆에 살며시 누우니
오늘도 여전히 그 콧노래

아버지의 콧노래는
한 옥타브 올라 드르렁 푸우후
아버지, 잠이 안 와요
응! 또다시 도돌이표 드르렁

이제는 잠을 못 잔다 해도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드르렁 드르렁 콧노래
눈시울이 붉어 온다.

약력

▲월간 '문예사조' 수필, 계간 '동산문학' 시 신인상
▲수필집 :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외 2권
▲시집 : '더불어 락', '사랑의 빛을 지다'
▲수상 : 동산문학인상, 광주문협 지상백일장 입상, 아세아서
석문학 작품상
▲한국문협 회원, 광주문협 이사, 동산문학 부회장



시

최인순

수석


당신이 나를 찾기 이전
세월의 바람에 떠밀린 채
산의 척추와 골짜기의 숨결을
부딪고 굴러다니던 나는
무명의 한 조각 돌멩이였다

지각의 가장 깊은 어둠 속
억겁의 밤을 건너온 별빛이
한 줄기 우주의 분신으로
고요히 잠들어 있었을 뿐

그러다 어느 한때 스치던
당신의 눈길 당신의 손길에
오랜 침묵에서 깨어난 운명이듯
미증유의 결을 지닌 한 존재로
우주의 잔해였던 나의 서사가
다시 장엄하게 시작되었다.

약력

▲(전)계간 동산문학 주간
▲한국문인협회, 광주문인협회 이사
▲광주시인협회, 광주영상미디어클럽 이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청소년글짓기대회 대국민심사(제20회)
▲시집 : '채석강에서', '저서 : '육아일기', '방송된 나의 글'
▲수상 : 빛고을전국시낭송대회 대상, 안양문학글판창작시공모 우수상



동시

최해자

환절기

아침은 짙짙한 가을 날씨
한낮은 아직 더운 여름 날씨


덧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떠올리는 할머니 말씀.

“아가야!
환절기 감기가 더 독하단다...”

약력

▲문학춘추(수필/동시) 등단
▲광주문인협회, 국제펜광주, 문학춘추작가회 회원
▲수상 : 문학춘추빛고을문학상 특별상, 광주문인협회 공로
상, 장성문인협회 공로상
▲저서 : 수필집 '꽃꽃반지' 외 2권, 동시화집 '하늘 도화지'
외 1권



수필

조자영

특별한 보통날

행복한 삶이란 어떤 걸까.
한때는 그것이 멀리 있는 파랑새처럼 유별
하게 존재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특별한 것 하나 없는 지근거
리 보통의 삶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설날 연휴를 시작으로 일주일여를 꼬박 앓
았다. 종일 빠르고 시시때때로 격하게 쫓
러대는 아랫배 통증. 심상치 않았지만, 자주
않던 부인과 통증과 엮이듯하고 병원도 문을
닫은 상황인지라 진통제를 먹어가며 견뎌다.
코로나19에 이은 수상한 바이러스들이 퍼져
세상은 움츠려있지만, 웃고 먹고 떠들며 사
람들은 각기 저들만의 명절을 즐기고 있었

다. 육신의 통증은 마음을 궁지로 몰아넣었
다. 기름진 음식을 즐기며 함께 웃고 싶었지
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모두 즐거워 보이는
데 나만 괴로운 현실, 참을 수 없는 고독감에
온몸이 저려 왔다.

그녀를 떠올렸다. 카피라이터이자 행복 전
도사로 살았던 여자.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
지 마라.' 긍정과 꿈을 역설하던 여자. 하지만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그 여자. 병마와
싸우면서도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던 그녀를
무너뜨린 것도 극심한 통증이었다. '자신에 맞
는 행복을 찾아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만인에게 설파하던 그녀였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하지만, 육신의 고통은 결국 정신
을 잠식하고 만다. 그때 그녀에게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마저 먹빛이었을지 모른다.

일찍이 행복 같은 건 믿지 않았던 난 아침
에 눈을 뜰 때면 주르르 흐르는 눈물로 베갯
잇을 적시는 습벽이 있었다. 딱히 불행하다
고 여길 세도 없었으나 밤은 어두운 꿈을 꾸
기 일쑤였고 아침은 우울로 부대끼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인가, 좋아하는 여가수의 같
은 고백은 적잖이 충격이었다. 언제 들어도
슬픈 그녀의 노래엔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
이 드니 서글펐다. “누구나 그러지 않아요?”
한때 내 생각과 똑같은 우문(愚問)을 건네며
웃던 그녀에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도
모르게 단호한 혼잣말 답을 하고 있었다. 어
린 두 아들의 등굣길을 배웅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신나는 일들이 일
어난다.” 당부를 잊지 않던 시절이었다.

어둡고 긴 터널 같은 연휴를 지나 황급히
병원을 찾았다. 아랫배 쪽에 문제가 생겨 몇
년 전처럼 수술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품은 채였다. 두 곳의 병원을
거친 결과는 뜻밖에도 장염이었다. 그나마
내겐 최선의 결과이기에 마음이 놓였다. 수
액을 맞고 집으로 가는 길, 통증은 여전했지
만, 볼에 닿는 바람은 병원으로 향하던 아침
의 그 맑찬 바람이 아니었다. 지나가는 사람
들의 눈빛마저 다정해 보이며 조금씩 살맛이
나기 시작했다.


행복, 그것은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닌 듯하다. 보통의 기분으로
보통의 아침을 맞고 보통 사람이 먹는 밥을
소화 시키며, 가끔 올려다본 하늘이 슬프지
않다면 그게 바로 행복한 것이다. 네일클로
버의 꽃말은 ‘행운’, 세이클로버는 ‘행복’이

라고 한다. 알고 보면 지천으로 널린 행복. 세
잎클로버처럼 무수한 내 결의 행복을 두고
네일클로버를 찾으려 애쓰는 건 어쩌면 탐욕
이 아닐까. 꽃이 만발한 초여름의 뜰에 앉아
네일클로버를 찾는 일에 더는 내 보통의 시
간을 쏟지 않으려나.


통증이 말끔히 사라진 날, 나를 위한 선물
일까. 하늘에서는 난분분한 눈발이 자꾸만
내려온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보통날이다.

약력

▲대한문학 등단
▲수필집 : '시들지 마라 피어있으라'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지방
지사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

CMYK

+